

행복표현의 사용: 행복요인과 의미*

조영순

(전남대학교)

Cho, Youngsoon. (2021). Use of happiness expressions: Happiness factors and meaning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9(2), 95-114. This study analyzes uses of 'hayngpok (happiness)' and 'pwulhayng (unhappiness)', two different expressions of Korean happiness, centering on factors of happiness and linguistic features which lead to a different profiling of senses. Uses of the two expressions are scrutinized based on the Sejong magazine corpus, which is likely to show the general concept of happiness, and three major points are revealed. First, examining elements of happiness mostly supports the findings of previous psychological studies on happiness of Korean people and adds that society at large is another non-negligible factor. Second, between the two senses which 'hayngpok' and 'pwulhayng' share, the sense of emotion is salient with 'hayngpok,' and the sense of luck is salient with 'pwulhayng'. Third, the two words characteristically combine with different kinds of experiencers: 'hayngpok' with an individual experiencer and 'pwulhayng' with a group.

주제어(Key Words): 행복(happiness), 불행(unhappiness), 행복요인(factors of happiness), 감정(emotion), 운(luck), 경험자(experiencer)

1. 서론

본 연구는 말뭉치를 대상으로 '행복'과 '불행'의 사용을 주로 행복 요인과 의미 자질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복은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이런 이유로 행복이 무엇이며, 행복 달성에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심리학, 인류학의 연구가 활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발화된 관련 표현의 사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말뭉치를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된 행복 요인과 관련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연구년 연구비(과제번호:2018-3510)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행복연구에서 언어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필요하다. 행복연구가 밝힌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행복 개념 및 의식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행복을 인간의 기본 감정으로 보는 견해도 팽배하지만, 기본 감정도 보편적이지는 않으며, 행복도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Gendron et al., 2014)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어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언어 상대성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마다 다른 행복개념은 언어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자연스런 언어 사용에 담긴 행복의식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여러 사실을 밝혀냈다(Choi et al., 2016, p. 166). 그러나,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한국인이 가지는 행복 의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하다(Choi et al., 2016, p. 169)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말뚱치에 나타난 행복 의식 연구는 하나의 경험적 연구로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 설문지나 행복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는 그동안의 방법은 개인의 의식적 반응은 파악할 수 있지만, 의식하지 않는 행복개념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뚱치에 기초한 행복연구는 다양한 환경에서 발화된 방대한 자료를 통해 일반인의 무의식적 행복 의식을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뉴스 말뚱치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시도한 박상현 등(2018)의 연구는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뉴스는, 자신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개개인의 사적인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양적 연구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세종말뚱치(국립국어원 2011)를 활용하여 ‘행복’과 ‘불행’의 사용에 나타난 한국인의 행복 의식과 두 표현이 윤곽화하는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는 세종말뚱치의 잡지 사용역(register)을 대상으로 자료를 추출하고, 각 자료에 대해 행·불행의 요인과 표현 사용 자질을 일일이 확인하는 질적인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은 그동안 밝혀진 한국인의 행복의식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행복’과 ‘불행’의 사용에 특징적인 의미 자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은 행·불행의 요인에 언어학적 자질을 추가한 다요인의 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응분석은 유의어나 반의어를 비교하여 특정 어휘가 윤곽화(profiling)하는 자질을 구별해 주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Glynn, 2007, 2010, 2014c; Krawczak, 2014). 이 분석을 통해 행복의식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여겨지던 ‘행복’과 ‘불행’이 어떤 자질을 윤곽화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2절은 연구배경으로 행복에 대한 기존 연구를 간략히 개관하고, 표현의 윤곽화를 살펴본다. 3절은 연구방법으로 ‘행복’과 ‘불행’의 자료를 선별하고 분류하여 그 사용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4절은 한국인의 행·불행 요인과 ‘행복’, ‘불행’의 사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2. 연구 배경

2.1. 표현의 사용 분석법

표현의 실제 사용은 언어연구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특히 인지언어학은 언어기호가 반복된 사용으로 고착화(entrenched)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언어 사용 패턴은 공유된 고착화의 표현이며 이러한 고착화가 언어구조를 이룬다(Glynn, 2010, p. 1)고 주장한다. 따라서 언어 사용패턴을 살펴보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화자의 개념구조를 포함한 언어 지식을 밝힐 수 있다.

어휘 연구에서 특히 그 출현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 파악에 핵심 요소이다.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맥락이라는 Firth(1957)에서 시작된 이 입장은, 빈번히 함께 나타나는 언어(collocates) 분석과, 선호하는 문법구조에 대한 Sinclair(1966)의 연결범주(colligation) 분석으로 이어졌다.

그 후 연구자들은 한 표현의 의미 결정에 언어와 연결범주뿐 아니라 맥락의 다양한 요소가 관련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예컨대 Hanks(1996)는 동사 incite와 urge의 의미는 언어뿐 아니라 주어의 유생성(animateness), 목적어 및 목적보어 등 보충어(complement)의 형태, 보충어의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등이 관련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어휘 의미 결정에 관여하는 이처럼 다양한 맥락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발전하였다. 하나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정교하게 검토하여 이 중 유용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추출하는 Gries(2010)의 양적 방법이다. 그는 이를 행동분석(Behavioral Profiles)으로 칭하고 통사, 의미 자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을 제시하여 다양한 어휘의미 연구에 신뢰할만한 틀을 제공하였다.

다른 하나는 Glynn(2007, 2010, 2014c)과 Krawczak(2014) 등에서 활용된 질적 방식이다. 이 방법도 표현의 다양한 의미와 맥락 정보를 일일이 검토하고, 다요인에 대한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하여 사용패턴을 식별해낸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행동분석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유의어와 다의어 연구에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감정어의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에 큰 기여를 해 왔다. 유사한 감정어도 개별 표현이 부각하는 의미, 즉 윤곽화(profiling)가 다르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Glynn(2014c)은 ANGER 표현인 *mad*, *annoyed*, *angry*, *pissed off*의 감정유발 원인의 유형이 다르며, Krawczak(2014)는 미국영어, 영국영어, 폴란드어의 EMBARRASSMENT, SHAME, GUILT 표현은 감정유발 원인과 주변 상황에 따라 사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이들이 사용한 검증방법인 대응분석은 요인들의 관련성 정도를 그래프상의 상대적 거리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어 분석에 활용되었던 질적 분석을 ‘행복’과 ‘불행’의 사용에 적용한다. 반의어도 유의어와 같이 하나의 의미장(semantic field)에 속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유의어 연구에서 활용되던 방법론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Glynn, 2014b, p. 11).

2.2. 행복연구와 '행복'과 '불행'의 사용

행복에 대한 학문적, 과학적 관점의 연구는 심리학적 측면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학적 논의는 행복이 무엇인지, 즉 행복 개념을 정의하려는 노력이었고, 시도된 정의들은 인간 삶의 다양한 요소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그 차이가 있다. 학자에 따라 긍정적 정서나 즐거운 감정의 측면(Diener 1984)과, 자기 수용과 개인의 성장과 같은 내적인 측면(Ryff 1989), 공동체적 소속감과 같은 사회적 측면(Keyes 1998)이 강조되지만, 이들을 포괄하여 행복을 정의하는 입장(Keyes and Magyar-Moe 2003 등)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행복 개념이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후(Diener et al., 1999), 문화별로 강조하는 행복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¹⁾ 이 중 한국인은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구재선 & 김의철 2006; 유나영 등, 2015; Choi et al., 2016).²⁾ 이 외에도 행복에 외적, 물질적 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Suh, 2007; 유나영 등, 2015), 내적 요인의 비중은 약하다(유나영 등, 2015).

이러한 심리학적 연구들은 표현 자체에 대한 관심은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의 인식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언어상대성(linguistic relativity)을 감안하면, 행복 의식도 관련 표현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말뭉치 분석은 행복에 대한 의식적 기술이 아닌 자연스러운 발화 속에 나타난 행복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값진 수단이다.

이런 점에서 유일한 말뭉치 연구인 박상현 등(2018)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온라인 기사에서 '행복'과 '불행'이 포함된 자료를 분석하여 '행복'이 '희망'과 유사성이 높고, '돈', '학교', '의사소통'과 관련성이 높으며, '불행'은 몸 상태 및 증상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나는 신문 기사만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였다는 점이다. 신문 기사는 공적인 글로서 개인의 내적인 행복을 기술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행복과 관련성이 있는 단어를 추출하는 양적 분석은 대략적인 행복 의식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행복'과 '불행'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차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두 표현은 감정과 운(luck)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의미가 부각되느냐에 따라 행복의식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 1) 독립적, 개인주의적 문화를 가진 서양의 행복 개념은 개인의 긍정적 감정과의 관련성이 높고(Diener et al., 2003), 미국인은 즐거움과 같은 쾌락을 느낄 때 행복하다(Lutz, 1988; Hochschild, 1983). 반면, 중국인은 사회적 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쾌락이나 즐거움보다는 안정된 감정을 행복과 연결시킨다(Lu, 2001; Lu & Gilmour, 2004). 일본인 역시 행복이 사회적 조화에 있다고 믿으며,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거나 질투를 유발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사실에 주의한다(Uchida & Kitayama, 2009).
 - 2) 한국인은 행복을 긍정감정으로 느끼는 비율이 일본인보다 더 높으며 행복이 어떤 목표를 위한 기능적 특성을 가지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의 상태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등(Choi et al., 2016)이 발견된다. 행복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보다 더 적극적이라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이성범, 2018).

본 연구는 세종말뭉치의 잡지 사용역을 대상으로 '행복'과 '불행'의 사용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세종말뭉치는 한국어의 전반적 사용을 살피기 위한 자료로 그 크기나 구성면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말뭉치이다.³⁾ 특히 잡지는 행복에 대한 다양한 의식을 볼 수 있는 사용역으로 판단된다. 소설에서는 행복 개념화가 주로 사랑이나 결혼이나 아름다움의 묘사와 함께 나타나고, 뉴스에서는 정치 사회적 사건의 기술과 함께 나타나는 등 사용역에 따라 행복의 다른 양상이 부각되는데, (비학술) 저널이나 다이어리에서는 다양한 양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Tissari, 2008, pp. 168-170).

분석은 먼저 자료에 나타난 행복과 불행의 요인을 분류하는 작업에서 시작한다. 심리학 연구에서 행복 요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정서적 요인,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관계적 요인과 예비 조사를 통해 자주 발견되었던 사회환경적 요인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는 경험주 혹은 주체가 개인인지, 그룹인지의 의미적 속성과, 이들이 행복과 불행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지, 요인이 이들의 가족과 관련되는지 여부이다. 이들 자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3.2에 기술한다.

3. 연구방법

3.1. 분석 자료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세종말뭉치의 잡지를 포함한 비학술 문어는 총 138개 파일, 4,166,151어절로 구성되어 있다.⁴⁾

대상 파일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먼저, '행복'이나 '불행'이 들어간 구문을 검색하여 예비 자료를 확보하였다. 실제 행·불행 사건의 경험을 기술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문은 '행복'과 '불행'의 형용사형이 포함된 문장이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충분한 양의 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과,⁵⁾ 실제 경험이 아니더라도 행복에 대한 태도나 견해도 행복 의식을 반영한다는 판단으로 검색 범위를 명사형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행복'은 831개가, '불행'은 271개가 검색되었다.

두 번째는 이들 검색 자료에서 최종 분석 자료를 선별하였다. 최종 자료는 행복의 근거나 이유 등이 포함된 구문으로 제한하였다. 이를 위해 단순히 '행복'과 '불행'이라는 표현을 포함할 뿐, (1)과 같이 행·불행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혹은 제시할 필요가 없는 자료

3) 세종말뭉치도 자료의 크기나 구성의 대표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또한 연구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어 말뭉치도 필요하다.

4) 세종말뭉치(2011)에서 잡지로 분류한 파일은 총 136개이다. 그러나 확인한 결과 2개 파일이 누락되어 본 연구에 이를 포함시켰다.

5) 행복과 불행의 형용사형을 검색어 행복[ㅎ,?,?]와 불행[ㅎ,?,?]으로 검색한 결과 각각 198개와 60개만이 검색되었다.

는 제외하였다.

- (1) a. 베를린발 연합통신 기사는 세계 54개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행복도 조사의 결과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 b. 극적으로 불행한 일이 없듯 극적으로 행복한 일도 없다.

같은 이유로 (2)와 같은 의문문, 기원문 등이 모두 제외되었다.

- (2) a. 보아는 정말 행복할까?
- b.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가. 소설처럼 불행했는가?
- c.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행복하십시오.

또한 (3)에서와 같이 문장부사 ‘행복하게(도)’나 ‘불행하게(도)’가 포함된 예를 모두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행·불행의 주체가 중의적이어서 분석의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⁶⁾

- (3) 불행하게도 독립 후 6개월이 채 못 되어 간디는 암살당했고, 네루는 인도의 경제를 자기 뜻대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3)에서는 간디가 암살당한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다. 이 때 불행은 간디의 것으로도, 혹은 인도의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⁷⁾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료는 ‘행복’의 경우 622개, ‘불행’의 경우 159개이다. 이들 자료에는 (4a)와 같이 행·불행을 실제로 체험하는 유형, (4b)와 같이 행·불행에 대한 태도나 의견 유형, 그리고 (4c)와 같이 두 유형과 무관한 기타 유형이 구별 없이 포함되었다. 모두 행·불행의 요인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 (4) a. 91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생활은 행복했다. 물이 좋았고 공기도 맑았다.
- b. 겸손은 인생들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삶의 원동력인 행복을 가질 수 있는 한 방법이며, 행복 그 자체이다.
- c. 사랑과 존경으로 평범한 행복을 일구고 싶습니다.

6) 그 결과, 모두 4개의 ‘행복하게도’ 구문과 67개의 ‘불행하게도’ 구문이 제외되었다.

7) 물론 (i)과 같이 주어가 1인칭인 경우는 중의적이지 않다.

(i) 농구를 시작할 때 허재형처럼 되고 싶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내 연기의 허재형은 최민수형이다. 내 인생에는 행복하게도 두 번이나 기회가 와 주었다.

8) 3.2절 참조

3.2. 분석 방법

‘행복’과 ‘불행’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감정 혹은 정서적 의미로, ‘행복’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로, ‘불행’은 <행복하지 아니함>으로 정의된다. 두 번째는 운과 관련된 의미로, ‘행복’은 <복된 좋은 운수>로, ‘불행’은 <행복하지 아니한 일. 또는 그런 운수>로 정의된다.⁹⁾

틀 의미론(frame semantics)의 입장에 따르면, ‘행복’과 ‘불행’이 전자의 의미로 쓰일 경우, 감정 사건의 틀(frame)에, 후자의 의미로 쓰일 경우 운(luck) 틀에 속한다.¹⁰⁾

감정 사건은 경험주(Experiencer)가 어떤 근거로 행·불행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틀 내용을 가진다. 이 때 근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직접적인 자극제(Stimulus), 주변의 상황(Circumstances), 주제(Topic), 이유(Reason) 등이 그것이다. (5)에서 행복의 경우를 살펴보자.

- (5) a. 예, 나는 어머니가 아주 젊고 아름다웠던 때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이미지는 내게 큰 행복감과 육체적인 힘을 주었어요.
- b. 웃음이 터져 나오며 두 사람의 혀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이들의 혀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한식과 비슷한 음식’이라도 맛볼 때다.
- c. 제3세계 사람들은 끈끈한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약간의 소득증가에도 큰 행복을 느낀다.
- d. 1998년 출가한 기엠 스님은 “의사로 일할 때도 남을 위해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었다”며...

(5a)는 엄마의 이미지라는 자극제가, (5b)는 음식을 맛보는 상황이, (5c)는 소득증가라는 일반적 주제가, (5d)는 봉사할 수 있다는 이유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은 틀은 주체(Protagonist)가 어떤 사태(State of Affairs)와 관련된다는 비교적 단순한 틀 내용(Content)을 갖는다. 예컨대 아래 (6)에서 불행의 내용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꽃가루가 많이 퍼진 세상에 있는 사태이다.

- (6) 신체에 대한 세 번째 부담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여 이 세상을 수 놓는 만큼 많은 꽃가루가 또한 이 세상에 퍼진다는 점이다. 이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행복’과 ‘불행’은 두 다른 틀에 속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의미 구성 요소는 다르

9)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10) 이는 버클리 대학의 FrameNetProject에 따른 것이다(<https://framenet.icsi.berkeley.edu>). 이에 따르면 *happy*도 감정 틀과 운 틀에 속한다.

지만, 본 연구에서는 [경험주 혹은 주체]가 자극제, 상황, 주제, 이유, 사태 등으로 표현되는 [요인]으로 인해 행·불행을 겪는다는 <경험주(주체), 요인(내용)>이 공통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본격적인 분석 작업은 이 중 요인(내용)을 찾아 분류하는 것이다. 분류는 행복 연구에서 포함되었던 요인과, 기초 조사에서 확인된 요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2.2에서 논의한 대로, 심리학의 행복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정서적 요인, 자기성장이나 정신 및 심리와 관련된 내적 조건, 사회적 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한국인의 행복연구에서는 물질과 같은 외적 조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행·불행 요인을 크게 정서적 자극 요인,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관계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정서적 요인의 행복에는 경험자의 능동적 행위나 생활 방식 혹은 가까운 주변 상황의 자극이 관련된다. (7a)는 술 마시는 행위가, (7b)는 말을 많이 타는 생활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 (7) a. 술은 단순히 취하기 위해 마시는 음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겨운 음식이지요.
- b.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타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행복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내적 요인으로 인한 행복에는 자신의 성취와, 종교 및 심리상태 등이 관련된다. (8a)는 등반성공으로 인한 성취감으로, (8b)는 종교적 믿음으로 행복을 느낀다.

- (8) a. 태극기를 정상에 꽂고 성경책과 설악산 훈련에서 희생된 세 대원의 사진을 차례대로 문었다. 이 순간의 심정을 어떻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도 행복해서 현실세계를 잊을 정도이다.
- b. 나는 그러한 하늘과 땅과 신성한 것 가운데 잠깐의 머뭇머뭇으로서의 짓기를 이룩하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외적 요인으로 인한 행복에는 (9)와 같이 재산, 가족의 존재, 외모 및 건강, 직업이 주는 행복감이 포함되었다.

- (9) a. 부나 지체의 수치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행복한 것으로 여긴다.
- b.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갑작스레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불행이 겹친 강씨 가족들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관계적 요인은 주변 사람과의 교류나 인정과, 나눔 및 봉사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10a)는 가족 사이의 사랑으로 행복을, (10b)는 주변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불행을 느낀다.

- (10) a. 스무 살에 청학동에서 서울로 올라와 10년 가까이 낮은 객지에서 혼자 외로운 생활을 해온 김봉곤에게 아내와 딸은 생전 처음 느끼는 행복감을 안겨 주었다.
 b.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라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회적 요인을 추가하였다. 이 요인은 가까운 주변 환경이 아니라 산업사회, 농경사회와 같이 광범위한 사회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으나, 자료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빈도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 (11) 당시 현장에서 피살된 경호원들과 마찬가지로 명령에 따라 총을 들었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김재규의 부하들 또한 불행했던 시대의 희생자라고 말하면 무리일까.

다음은 경험주 혹은 주체와 관련된 3가지 자질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이 개인인지 그룹인지, 요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제력이 있는지, 요인에 이들의 가족이 관련되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이 자질들은 기초조사를 통해 ‘행복’과 ‘불행’의 사용을 구별해 줄 것으로 판단된 자질이며, 이 중 통제가능성과 친한 사람 연관성은 감정어 분석에 자주 활용되는 자질이기도 하다.¹¹⁾ 특히 통제가능성은 ‘행복’과 ‘불행’이 가진 운(luck)의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자질이다. 경험주가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나 상황은 감정보다 운에 관련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 행·불행은 개인이 경험주 혹은 주체가 되지만, 예를 들어 (12)는 러시아(사람)와 현대인이라는 [그룹경험주]를 가진다. 경험주는 (13a)의 차 한 잔 마시는 것과 같이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나 (13b)의 청각장애와 같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행·불행을 경험하게 된다. (14)는 경험주의 행복 요인이 아내와 관련되므로 가족연관성을 가진다.¹²⁾

- (12) a. 러시아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러시아는 하루 8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막강 원유국 지위를 누리고 있다.
 b. 현재의 생산·소비양식은 인간이 살기 위해 삶의 모태인 자연을 파괴해야 한다는 근원적 딜레마 위에서 불안한 일상을 지탱하고 있다. 이 딜레마는, 다른 많은 모순들 중에서도 현대인을 괴롭히는 모호한 불안과 불행감의 무의식적 기원이 되고 있다.
 (13) a. 차 한잔으로도 지상에서 천상의 행복에 빠질 수 있다.
 b. 운보는 우향을 회고할 적마다 어머니이면서 훌륭한 스승이었으며 영원한 애인이

11) 이들은 2005년 감정어 의미연구를 위한 국제콘소시엄에서 감정과 언어연구 전문가가 모여 개발한 감정 분석 도구인 GRID에서 감정 사건의 중요 평가 자질로 활용되는 내용이기도 하다(Fontaine et al., 2014).

12) 가족의 존재 여부와 [가족연관성]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행복 요인 중 외적 요인에 해당하고, [가족연관성]은 예컨대 내 자식이 훌륭한 직업을 가져 내가 행복하다면, 이는 직업이라는 외적 요인과 함께 [가족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된다.

였노라고 한다. 청각 장애자로 불행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서게 했다는…….

(14) 아내가 자신의 꿈을 접는 순간, 그건 아내의 불행이자, 자신의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일테니까요.

아래 표 1은 지금까지 논의된 분석 자질을 모은 것이다.

표 1. 행·불행 자료의 분석 자질

행복 요인	정서적 요인
	내적 요인
	외적 요인
	관계적 요인
	사회적 요인
경험주	개인경험주
	그룹경험주
경험주의 통제 가능성	통제가능
	통제불가
가족관련성	연관
	무관

4. 결과

4.1. 행복의 요인

행복 요인은 전체적으로 관계적 요인의 비중이 가장 컸다. 아래는 행·불행의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로, 요인별 비중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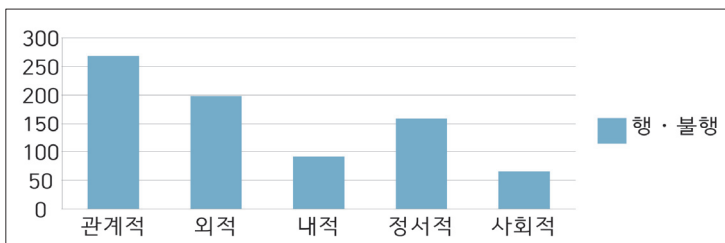


그림 1. 불행 전체 요인

그림 1을 통해 행·불행 전체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교류를 의미하는 관계적 요인, 외적 요인,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서적 요인, 내적 요인, 사회적 요인 순으로 그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X\text{-squared} = 171.72$, $df = 4$, $p\text{-value} < 2.2e-16$).

다음은 자료를 분리하여 각각 행복과 불행에서 요인별 비중을 분석하였다. 그림 2가 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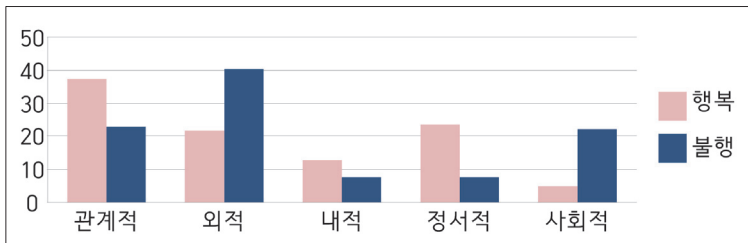


그림 2. 행복과 불행 요인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행복에 작용하는 요인의 중요도는 관계적 요인>정서적 요인>외적 요인>내적 요인>사회적 요인 순이다. 그림 1과는 정서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비중이 다르며, 나머지 요인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불행에는 외적 요인의 비중이 가장 크고, 관계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그 뒤를 이으며,¹³⁾ 내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즉, 행복을 느끼게 하는 주된 요인과 불행을 느끼게 하는 주된 요인은 서로 다르다($X\text{-squared} = 89.349$, $df = 4$, $p\text{-value} < 2.2e-16$). 긍정적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지만, 외적 요인의 결핍으로 불행을 가장 자주 느낀다. 또한, 정서적 요인은 행복에서, 사회환경적 요인은 불행에서 비중이 높다.

결과에 나타난 한국인의 행복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관계적 요인은 전체적으로 행복감 결정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요인이고(그림 1), 행복을 느끼게 하는 가장 흔한 요인이면서, 그 결핍이 불행을 느끼게 하는 정도도 상당하다(그림 2). 인간관계가 행복감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결과는 동양인이나 한국인의 행복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행복 감정이 미국은 ‘개인의 성취’와 가까운 반면, 일본은 ‘사회적 조화’와 가깝다는 연구나(Uchida & Kitayama, 2009), 한국인의 행복 모델이 미국인의 모델보다 ‘심리적 요인’이 약하고 ‘관계적 요인’이 크다는 연구(유나영 등, 2015) 등이 그것이다.

공적, 사적 상황에서 형성된 관계가 행·불행에서 모두 중요하게 관찰된다. (15a)의 사제 간과 같이 공적, 사회적 교류, (15b)의 부부간과 같이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의 사적인 교

13) 이들 요인은, 그래프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관계적 요인의 비중이 사회환경적 요인보다 미세하게 많다.

류 등이 행복 요인이 되고, (15c)의 학과 간의 단절과 (15d)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미움은 불행 요인이 된다.

- (15) a. 내가 제자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가의 정도는 차치해 놓고라도 국내는 물론 지구촌 어디엘 가도 반가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 b. 이들 부부는 행복하기만 하다. 일주일에 한번 하동 장터에 가는 날은 둘이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누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장터 아낙들이 서당 훈장 체통이 서지 않는다며 농을 걸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나온 둘만의 외출에 마음이 들떠 그런 소리는 귀에 들리지도 않는다.
- c. 조선의 두뇌를 우리 손으로 키우려는 목적으로 좌·우파를 망라한 민립대학운동이 성공했다면 국학과와 실증주의파의 불행한 단절이 아니라 강한 민족적 학풍이 국문학 연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정착했을 것입니다.
- d.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든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외적 요인이다(그림 1). 행복의 요인으로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불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그림 2). 외적 요인 중 행복은 특히 재산이나 소유와 관련해서 언급이 많으며, 불행은 본인이나 가족의 병이나 죽음, 소유와 관련된 언급이 많았다. 한국인의 행복은 외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주장(Suh, 2007; 유나영 등, 2015; 박상현 등, 2018)이 있지만, 특히 불행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외적 조건이 행복의 충분조건보다는 필요조건으로서의 기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외적 요인 중 소유의 문제는 행복과 불행에서 모두 비중 있는 요인이다. (16a)처럼 재산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16b)처럼 가난하면 불행하다.¹⁴⁾

- (16) a. 자동차는 가정의 행복을 키운다 - 하지만 62% 이상의 가정에서 자동차로 인한 가계 부담을 느끼고 있다.
- b. 남편의 증세가 조금씩 나아질 즈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다. 미국에 있는 시동생이 부도를 내,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삼청동 집이 남편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14) 그러나 이들 사례에는 i)과 ii)에서처럼 [소유]와 행복관계를 부정하는 사례는 21%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소유 및 재산은 여전히 비중있는 행복 요인이다.

i) 소비와 행복 사이에는 상관성이 약하다. 단군 이래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가장 행복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자명해진다.

ii) 행복은 많은 돈도, 많은 노력도 필요치 않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가정 문제나 병, 불구, 죽음과 같은 신체적 문제는 불행의 주요 요인이다. 특히 (17a)와 같은 신체적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17b)의 이혼과 같은 가정 문제도 꽤 발견된다.

- (17) a. 불행의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들이 다섯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한 김씨는 반신불수의 몸이 되어 생활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 b.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박씨는 부모에게 이혼사실을 밝혔고 그의 부모는 전(前) 며느리를 만나 재결합을 부탁했으나 이미 었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부모는 자신들이 이민을 가지 않았다면 자식의 불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슴을 친다고 한다.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은 정서적 요인이다(그림 1). 행복보다 불행에서의 비중은 더 미미하다(그림 2). 행복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서양과 달리(Diener et al., 2003), 한국인에게는 관계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서적 요인의 비중이 적은 점은 이해할 만 하다.

행복한 정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은 경험주 자신의 생활과 외부의 자극이 많다. (18a)는 자신의 생활이나 행위로 인한 행복을, (18b)는 외부 자극으로 인한 행복의 예를 보여준다.

- (18) a. 솔직히 남자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 무대에 오르는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 b. 어렵사리 몸을 아래로 움직여서 발이 침대끝의 금속봉에 닿도록 했다. 금속에 닿는 느낌이 왔다. 매우 차갑게 느껴졌다. 그것은 내가 평생동안 경험해본 어떤 느낌보다도 행복한 느낌이었다.

네 번째 요인은 내적 요인이다(그림 1). ‘행복’에서도 미미한 요인이지만 ‘불행’에서 더욱 그러하다(그림 2). 종교의 도움으로 편안한 심리 및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행복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개인의 성취는 행복이나 불행의 요인으로 미미하게 발견될 뿐이다. 내적 요인의 비중이 낮은 것은 심리학적 연구에 부응하는 결과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많은 연구가 동양인이나 한국인이 내적 요인의 비중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19a)는 신앙이, (19b)는 정신적 풍요가 행복과 관련된다.

15) 본 연구는 빈도에 기초한 것이지만, 사실 가장 강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개인의 성취’라는 발견(구재선 & 김의철, 2006)도 있다. 기타 요인의 행복은 자주 느끼지만, 자아 성취나 정신 상태로 느끼는 행복은 빈도는 낮아도 훨씬 강할 수 있다.

- (19) a. 나는 신의 축복을 느낍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b.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와 빈곤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요소일테니까요.

다섯 번째 요인은 사회적 요인이다(그림 1). 다른 요인에 비해 행복감에서의 역할은 작고 심리학적 연구에서 관심을 받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언어자료로 확인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불행의 경우,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그림 2). 행복과 불행을 느끼게 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은 경험주와 가까운 주변 및 지역사회가 아니라 (20a), (20b)에서 보듯이 매우 큰 범위의 사회라는 특징이 있다.

- (20) a. '경제적 인간'의 행복은 산업문명에 의존하고, 이 문명의 중심에는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b. 현대는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가장 궁핍하고 불행한 시대인지도 모른다.

4.2. '행복' 과 '불행'의 사용과 의미

다음은 행복 요인 외에 경험주의 유형, 요인의 경험주 가족 관련성, 경험주의 요인 통제가능성을 고려한 다요인 분석인 다중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¹⁶⁾ '행복', '불행'의 표현이 윤곽화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대응분석 결과, 두 어휘 범주와 사용 자질들 사이의 서로 다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이 그 결과이다. 연관관계는 그래프의 형태로 표시되는데, 연관성의 정도는 어휘와 자질 간의 상대적 거리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그래프의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래의 수치를 살펴보자.

```
Principal inertias (eigenvalues):
```

dim	value	%	cum%	scree plot
1	0.118521	74.4	74.4	*****
2	0.014460	9.1	83.4	***
3	0.000682	0.4	83.9	
4	0.000000	0.0	83.9	

 Total: 0.159390

그림 3. 관성 정보

16) 다중대응분석과 그래프는 프로그램 R의 패키지 {ca}를 이용하였다.

다중대응분석은 여러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관성(inertia)이 매우 낮다. 따라서 몇 가지 조정값이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Greenacre(2006)에 따라 조정된 버트 분석(adjusted Burt analysis)을 사용하였다.¹⁷⁾ 이 수치에 의하면, 자료가 두 차원 F1과 F2에서 각각 74%, 9%씩 설명되고, 두 차원을 합하면 자료의 약 83%정도가 설명된다. 다요인분석에서 70%이상은 만족할 만한 정도이므로(Krawczak, 2014, p. 460), 그리고 F3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미약하므로, F1과 F2만을 고려한 그림 3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고 또 효율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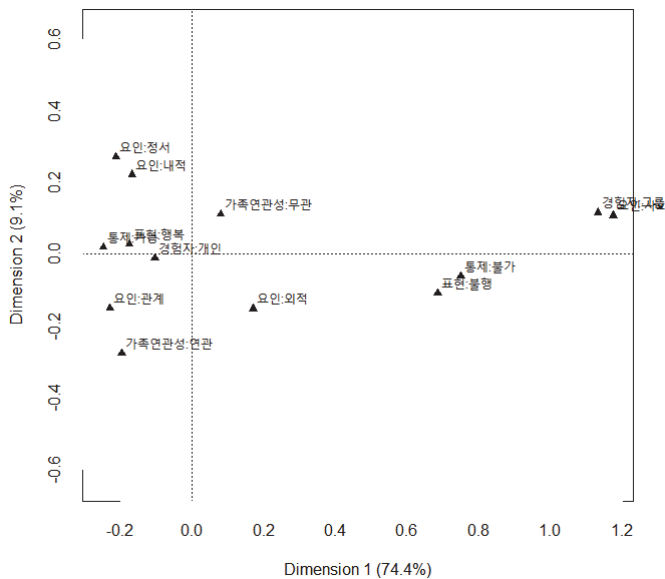


그림 4. '행복'과 '불행'의 다중대응분석

그림 4에서 '행복'은 좌측 위 공간에 표시되고, '불행'은 우측 아래 공간에 표시되었다. 이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자질일수록 연관성이 크다.

'행복'은 [통제가능], [경험자:개인] 자질과 함께, 관계적 요인, 내적 요인, 정서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행복 요인과 가까운 반면, '불행'은 [통제불가], [경험자:그룹], 외적 요인, 사회 환경과 같은 요인과 가깝게 위치해 있다. [가족연관성]은 [연관]과 [무관]이 모두 '불행'보다 '행복'과 더 가깝다.

이 결과는 두 표현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행복'은 개인이 여러 요

17) 이 방식은 규칙성을 보이는 자료의 비율과 시각화의 정확성에서 훌륭하다(Glynn, 2014a, p. 450).

인으로 느끼는 감정이라는 의미가 두드러지고 ‘불행’은 주체의 능력이 닿지 않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운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행복’은 개인 경험주가 통제 가능한 다양한 행복 요인으로 즐거움을 느낄 때 주로 사용되고, ‘불행’은 여러 요인 중 외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과 밀접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통제불가]라는 자질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과는 그동안 인식되지 못했던 ‘불행’과 [그룹경험주]와 연관성이다. 물론 이는 상대적 특성으로, ‘불행’이 [개인경험주]보다 [그룹경험주]를 선호한다기보다, ‘행복’이 거의 [개인경험주]를 가지지만 ‘불행’은 [그룹경험주]를 가지는 경우가 유의미할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행’이 집단 감정(collective emotion)이나 집단의 운을 기술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은 후속 연구에 시사점이 있다. 예컨대 이 특성이 의미기술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서양과 달리 집단주의 경향이 큰 우리 문화의 특징인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정 상황을 개인적인 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겪는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언어와 사고와의 관련성을 감안할 때 집단주의 문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가족연관성]은 ‘행복’과 ‘불행’을 구별하는 특성은 아니다. ‘행복’이 상대적으로 [가족연관]이나 [가족무관]과 가깝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거의 비슷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불행’의 경우도 상반된 두 자질과 거의 거리가 비슷해서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한국인의 행복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심리학적 연구(Choi et al., 2016)는 확인할 수 없었다. 가족뿐 아니라 친구, 애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교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지금까지 말뭉치를 대상으로 ‘행복’과 ‘불행’의 사용에 나타난 행복 요인의 비중과 의미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행복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두 표현이 부각하는 의미가 다름이 나타났다.

행복요인에 대한 분석은 심리학적 연구를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언어자료가 사회적 의식을 반영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분석결과는 서양인에 비해 동양인이나 한국인은 내적 요인이 약하고 관계적 요인이 커진다는 심리학적 연구(유나영 등, 2015)와 같다. 또한, ‘불행’이 몸 상태나 건강과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박상현 등, 2018)도 확인되었다.

세부적인 면에서는 기존 연구를 보완한다. 먼저, 한국인의 행복에 건강과 재산과 같은 외적 조건의 비중이 크다는 발견(Suh, 2007; 유나영 등, 2015; Choi et al., 2016; 박상현 등, 2018)에 대해, 건강은 행복보다는 불행에서 크게 부각되며, 재산은 행복과 불행에서의 비중이 거의 같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외적인 조건의 충족은, 많은 경우, 적극적으로 행복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불행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행복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현대사회나 산업사회와 같이 광범위한 사회환경도 행·불행의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심리학적 연구에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요인이지만, 자연스런 발화 모음인 말뭉치에서 '불행'의 사용과 관련, 비중있게 발견된다는 점에서 그 실제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 요인의 차이는 결국 '행복'과 '불행'은 부각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행복'은 경험주가 [통제가능]한 요인으로 느끼는 감정 관련 의미가, '불행'은 신체와 외부 환경이라는 [통제불가]의 요인으로 겪게 되는 운의 의미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행복'은 [개인경험주], '불행'은 [그룹경험주]와 자주 결합하는 특징도 있다.

추후 비교언어적 연구를 통해 이것이 한국어만의 특성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윤곽화하는 의미의 차이가 행복 의식의 차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재선, 김의철. (2006). 한국인의 행복 경험에 대한 토착문화심리학적 접근. *문화 및 사회문제*, 12(2), 77-100.
- 박상현, 도강혁, 김학영, 박가은, 윤진혁, 김경일. (2018).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인의 행복과 불행 탐색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10-27.
- 유나영, 정여진, 김비아, 정영숙, 신현정. (2015). 한국인의 행복 개념 탐색연구. *한국민족문화*, 55, 197-230.
- 이성범. (2018). 한국과 일본의 행복 감정 표현성에 대한 대조문화적 연구, *언어과학연구*, 25(1), 119-145.
- Choi, E., Kim, Y., & Uchida, Y. (2016). The folk psychology of happiness in Korea. *문화 및 사회문제*, 22(2), 165-182.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302.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25.
- Firth, J. R. (1957). *Papers in linguistics, 1931-195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endron, M., Roberson, D., van der Vyver, J. M., & Baret, L. F. (2014). Perceptions of emotion from facial expressions are not culturally universal: Evidence from

- a remote culture. *Emotion* (Washington, D.C.), 14(2), 251-62.
- Glynn, D. (2007). *Mapping meaning. Toward a usage-based cognitive semantic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Leuven, Belgium.
- Glynn, D. (2010). Synonymy, lexical fields, and grammatical constructions. A study in usage-based cognitive semantics. In D. Glynn & J. Robinson (Eds.), *Cognitive foundations of linguistic usage-patterns* (pp. 89-118). Berlin: Mouton de Gruyter.
- Glynn, D. (2014a). Correspondence analysis: Exploring data and identifying patterns. In D. Glynn & J. Robinson (Eds.), *Corpus methods for semantics* (pp. 443-485).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lynn, D. (2014b). Polysemy and synonymy: Cognitive theory and corpus method. In D. Glynn & J. A. Robinson (Eds.), *Corpus methods for semantics: Quantitative studies in polysemy and synonymy* (pp. 7-38). Amsterdam, The Netherland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lynn, D. (2014c). The social nature of anger: Multivariate corpus evidence for context effects upon conceptual structure. In I. Novakov, P. Blumenthal, & D. Speepmann (Eds.), *Emotions in discourse* (pp. 69-82). Frankfurt: Peter Lang.
- Greenacre, M. (2006). *Correspondence analysis in practice*. London: Campman and Hill.
- Gries, S. (2006). Corpus-based methods and cognitive semantics: The many meanings of to run. In S. T. Gries & A. Stefanowitsch (Eds.), *Corpora in cognitive linguistics: Corpus-based approaches to syntax and lexis* (pp. 57-99). Berlin: Mouton de Gruyter.
- Gries, S. (2010). Behavioural profiles: A fine-grained and quantitative approach in corpus-based lexical semantics. *Mental Lexicon*, 5, 323-346.
- Hanks, P. (1996). Contextual dependency and lexical se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 75-98.
-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London, Eng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Keyes, C. L. M., & Magyar-Moe, J. L. (2003). The measurement and utility of adult subjective well-being.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411-425).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rawczak, K. (2014). Shame, embarrassment and guilt: Corpus evidence for the cross-cultural structure of social emotions. *Poznań Studies in Contemporary*

- Linguistics*, 50(4), 441-475.
- Lu, L. (2001). Understanding happiness: A look into the Chinese folk psycholog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407-432.
- Lu, L., & Gilmour, R. (2004). Culture and conceptions of happiness: Individual oriented and social oriented swb.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5(3), 269-291.
- Lutz, C. (1988). *Unnatural emo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yamoto, Y., Uchida, Y., & Ellsworth, P. C. (2010). Culture and mixed emotions: Co-occurr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motion*, 10(3), 404-415.
- Oishi, S., Graham, J., Kesebir, S., & Galinha, I. C. (2013). Concepts of happiness across time and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5), 59-7.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weder, R. (1991). *Thinking through cultur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inclair, J. (1966). Beginning the study of lexis. In C. Bazell, J. Catford, M. Halliday, & R. Robins (Eds.), *In memory of J. R. Firth* (pp. 410-429). Harlow, England: Longman.
- Suh, E.-M. (2007). Down sides of an overly context 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75, 1321-1343.
- Tissari, H. (2008). Happiness and joy in corpus contexts. In H. Tissari, A. B. Pessi, & M. Salmela (Eds.), *Happiness: Cognition, experience, language* (pp. 144-174). Helsinki: Helsinki Collegium for Advanced Studies.
- Uchida, Y., & Kitayama, S. (2009). Happiness and unhappiness in east and west: Themes and variations. *Emotion*, 9(4), 41-56.

조영순

(59626) 전남 여수시 대학로 50 (둔덕동)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영어학전공 교수

전화: (061)654-7514

이메일: ysncho@jnu.ac.kr

Received on May 7,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16, 2021

Accepted on June 30, 2021